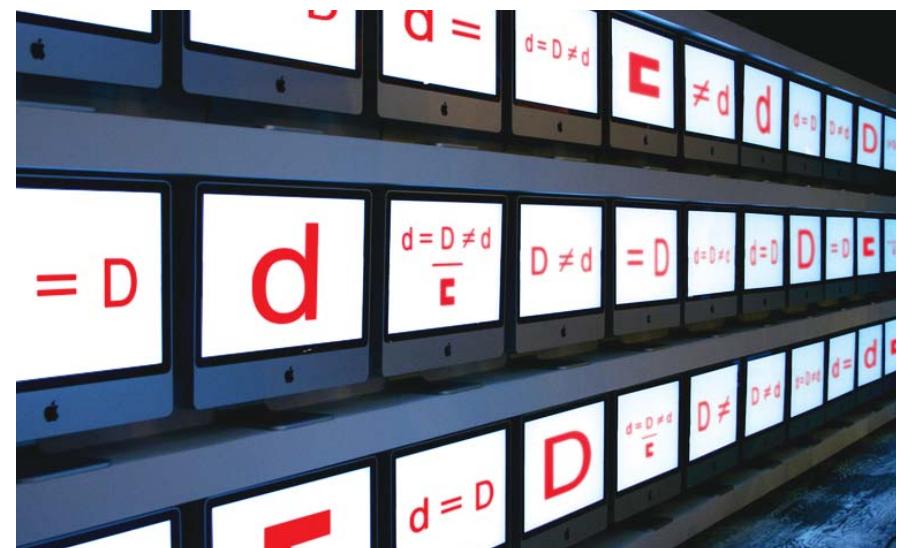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작가 확정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 보여준다

$$d = \frac{D}{E} \neq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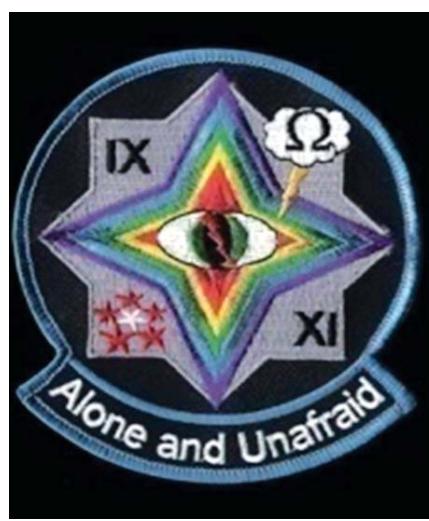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는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3일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는 40여 개국 260여 디자이너와 기업이 참여해 137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제전 '안그라픽스'



유명전 '브루스 마우 디자인'



무명전 '트레보 페글렌'

브루스 마우 등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260여명 참여

환경·군사조직 등 사회문제 다른 명작 대거 선보여

현재 작가 섭외와 작품 선정이 마무리됐고, 오는 6월말부터 작품 운송을 거쳐 개막 40일 전인 7월말 전시장에 모든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참여 작가들 중에는 유명 디자이너와 그룹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전시는 주제, 유명, 무명, 커뮤니티, 아베플리, 비엔날레 시티 등 6개 섹션으로 꾸려진다.

디자인비엔날레의 전체 주제인 ‘도가도 비상도: 디자인이 디자인’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주제전’에는 5개 국가의 10개 디자이너와 기업이 참여한다.

국내 업체인 ‘안그라픽스’의 영상 작품으로 꾸며지는 주제전의 진입부는 흥미盎 안상수 교수가 디자인한 디자인비엔날레의 로고를 그래픽으로 설치한다.

‘유명전’은 예술, 건축, 패션, 그래픽, 산업디자인 등 기존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디자이너들의 창작 세계를 다룬다. 이 섹션에는 20개 국가의 50여 기업과 디자이너의 작품 40점을 전시한다.

‘브루스 마우 디자인(Bruce Mau Design·캐나다)’은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있다(Everyone has a name)’는 주제로 일반인들이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스텝실 기법을 통해

해선보인다.

또 ‘수퍼플렉스(Superflex·덴마크)’도 금융위기를 재해석한 12분간의 영상과 조명작품을 설치한다.

이 섹션에 참여하는 ‘아룹(ARUP, 영국)’이 선보이는 ‘변화의 요인(Drivers of Change)’은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당면한 환경에 관한 문제를 단지고, 관객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작품이다.

‘무명전’에는 42개 나라의 58여 기업과 디자이너가 70여 작품으로 참여한다. 미국 사진작가 ‘트레보 페글렌(Trevor Paglen)’은 미국 내 비밀군사조직의 어깨 폐허들을 모아 스캔해 가로 3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틀 안에 설치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티디 아키텍츠(TD Architects·오스트리아)’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자동되거나 않고 쓰레기로 방치된 엄청난 수의 위성들을 나타내는 디아이그램을 통해 우주 산업의 유산에 관련된 사실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 밖에 ‘커뮤니티전’에는 15개 국가의 40여 기업과 디자이너 10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비엔날레 시티’는 전시장을 하나의 도시로 설정해 다양한 디자인의 양상을 소개한다. 문의 062-608-4224.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27일

연극 ‘파우스트의 기출’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

28일

논총집 ‘한국 드라마의 위상’, 회곡집·칼럼집 출판 기념회

김우진(1897~1926년), 차범석(1924~2006년)으로 이어지는 한국 희곡시의 3세대로 희곡 작가, 연극이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한옥근(65·조선대 국어교육과·사진) 교수.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한 교수는 1969년부터 광주 연극관에 들어온 디자이너 브루스 마우 등 유명 디자이너와 그들이 참여해 현대 디자인의 화려함을 선사한다.